



3월 10일



하나님께서서 여러 모양의 새를 만드셨어요.
새는 푸른 하늘을 높이높이 날아 다니지요.
예쁜 소리로 지저귀며 하나님을 찬양해요.



하늘을 날지 못하는 새도 있어요.
타조는 날지 못하지만 말처럼 빨리 달려요.
닭도 날지 못하지만 새벽마다 "꼬끼오~" 하면서
아침을 깨우지요.

생각하는 아이

자라나길 기다려요.

"엄마! 이제 이 씨앗은 어떻게 될까요?"

"남우가 관심을 갖고 돌봐주면 이 씨앗은 흙 속에서
싹이 나오게 될 거야. 곧 예쁜 새싹을
볼 수 있겠구나. 조금만 기다리렴."

남우는 씨앗이 고개를 내밀기를
기다렸어요.

하룻밤이 지나고, 그다음 날 밤이
지나도 새싹은 보이지 않았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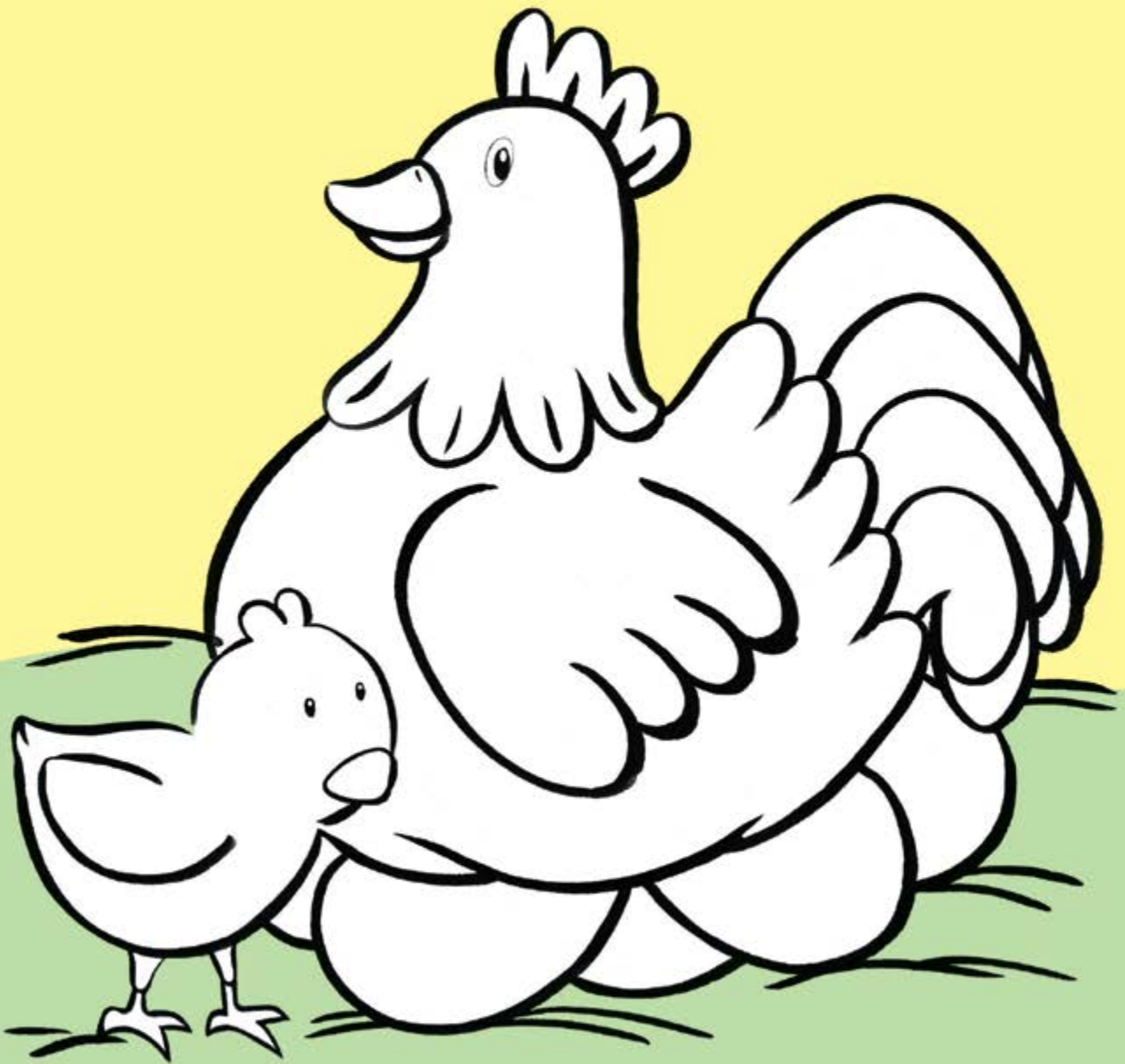
"엄마! 씨앗이 나오지 않아요. 꺼내볼까요?"

"엄마도 남우와 만나기까지 열 달을 기다렸단다. 엄마 뱃속에서
무얼 하고 있을까 얼마나 궁금했다고... 우리 씨앗이 잘 자라기를
기다리며 기도해 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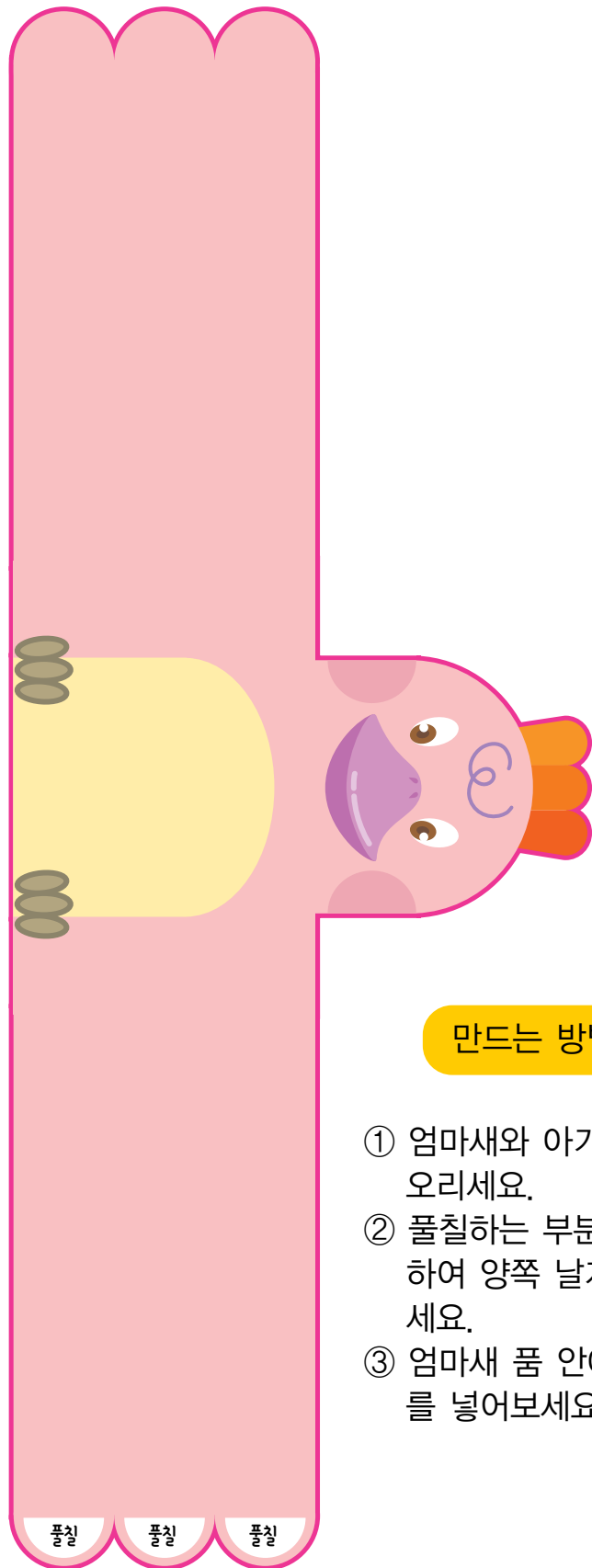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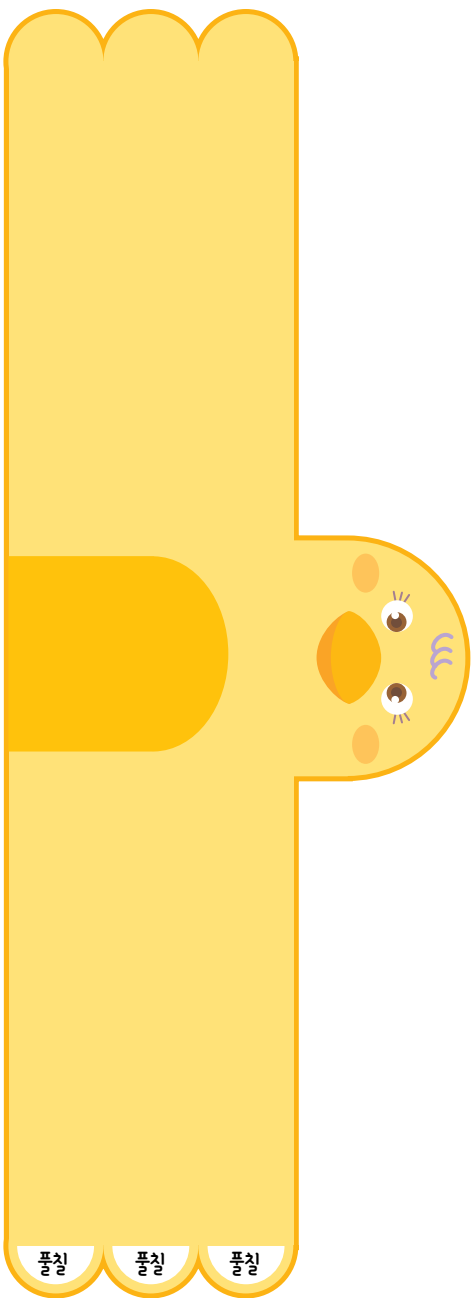
즐거움 활동

엄마닭이 알을 품고 있어요.
엄마닭과 알들을 예쁘게 색칠해요.



"엄마새와 아기새를 만들어요."

재밌는 만들기



만드는 방법

- ① 엄마새와 아기새를 오리세요.
- ② 풀칠하는 부분에 풀칠하여 양쪽 날개를 붙이세요.
- ③ 엄마새 품 안에 아기새를 넣어보세요.



마음속 암송

따라 쓰기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날으라
창세기 1장 20절

다시 쓰기

--	--	--	--	--	--	--	--	--	--

--	--	--	--	--

--	--	--	--	--	--	--	--	--

선생님께

부모님께